

# 전주음식문화 아카데미 '맛손클럽'

한국전통문화전당, 1기 개강식 진행... 이론·실습 교육 등으로 음식문화 발전 선도 역할 기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은 2일 4층 교육실에서 맛손클럽 교육생 24명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맛손클럽 1기 개강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맛손클럽'은 전주음식문화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시민참여형 모임으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관련 행사나 교육 등의 활발한 정비가 교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전주음식 문화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이론과 실습, 다 지역 식문화 탐방 등 모두 10회차 과정으로 구성, 지역 식문화에 대한 식견을 확장하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초 모집 인원의 두 배가 넘는 교육생들이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맛손클럽의 한 교육생은 "전주하면 맛의 고장인데 시민들이 그 맛을 배우고 소통할 기회가 적어 매우 아쉬웠는데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된 이번 맛손클럽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2일 4층 교육실에서 맛손클럽 교육생 24명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맛손클럽 1기' 개강식을 진행했다.

김선태 원장은 "예로부터 전주는 맛의 고장, 세계가 인정하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시민들이 자긍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며 "첫 시민참여형 모임인 맛손클럽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식창의센터는 9월 중 맛손클럽 2기 모집에 나섰다. /장은성 기자



(재)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는 전북도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의 일환으로 '2022 콘텐츠 창작·창업 아카데미'를 전북도콘텐츠코리아랩 센터에서 진행했다.

## 콘텐츠 창작·창업자 양성 아카데미

전북도콘텐츠코리아랩 사업 일환 이론·실무 등 전문교육 진행

(재)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최용석)에서는 전북도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의 일환으로 '2022 콘텐츠 창작·창업 아카데미'를 전북도콘텐츠코리아랩 센터에서 진행했다.

본 사업은 도내 예비 창작·창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창작과 사업화를 위한 전문적인 창작교육과 기본 창업교육 제공을 통해 준비된 창작·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10일부터 미디어,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등 콘텐츠 분야 아카데미 보유자 모집을 통해 총 13개 팀을 모집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기본 이론 교육이 실시됐다.

기본 이론 교육은 창업 선배들의 콘텐츠 분야 창업이야기부터 사업화를 위한 트렌드, 아이디어발굴, 상품화 및 마케팅까지 총 9회차에 걸쳐 진행됐다.

이달부터는 실제 사업화를 위한 실무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를 시작으로 일러스트, 캐릭터, 웹툰, 영상 등 각 분야별 콘텐츠 전문가들의 콘텐츠 창작 실무와 창업방법에 대한 전문교육이 총 10회차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콘텐츠코리아랩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제작자를 양성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향토문화유산 지정' 나선다

고창군, 순화중 도소 등 지정 위한 학술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고창군이 순화중 도소 등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나선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층 상 황실에서 '고창 동학농민혁명 비지정 문화재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진윤식(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 부장을 포함한 군청 관계자와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유바다 교수(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가 동학농민혁명의 3대 지도자인 순화중이 동학을 포교했던 성승면 고치리

양길거소와 부안면 괴체지, 동학농민혁명군의 숙영지로 알려진 공음면 여시외봉 등에 대한 조사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사적으로 지정된 무장기 포지와 전라북도기념물로 지정된 전봉준 생가 터뿐만 아니라 순화중 도소·거소·괴체지·여시외봉 등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동학농민혁명 성지'로서 고창군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탄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윤식 이사장은 "이번 학술조사를 통해 순화중 유적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함께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체계적인 유적지 관리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화중은 지금의 고창군 성승면 고치리



에서 동학을 포교했다. 1892년 8월 선운사 도술암 마애불 비기 탈취사건이 소문이 나면서 순화중은 동학의 대접주로 성장했다. 순화중은 전봉준과 함께 음력 1894년 3월 20일 무장기포를 주도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사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백사리까지도 인생이니까 출간

"뭐 하나 빼놓고 건너뛰고, 꺾지 않고 가야 할 길은 없는 게 인생인 걸. 삐딱선을 타더라도, 좀 거칠고 질펀하게 가더라도, 가야 할 길은 꼭 가야만 하는 게 사람의 일생인 걸."

책 '백사리까지도 인생이니까'(북라이프)는 방승작가 장재주가 살면서 겪었던 사람과 사

랑에 관한 '인생 백사리'의 기록을 담은 휴먼 드라마다.

전작 '엄마도 엄마를 사랑했다면 좋겠어', '오늘도 엄마에게 화를 내고 말았다'로 엄마와 딸들을 응원했던 저자는 이 책에서 여성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도록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저자는 사랑과 결혼,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과 성찰, 진정한 자기 삶을 찾아가는 과정도 풀어냈다.

이 책에는 친구에게 부케를 받기 2주 전 파혼했던 이야기, 돈 달란 소리를 깨닫기가 힘들어 6개월 치 월급을 떼이면서도 찌소리도 못했던 이야기, 폭언을 서슴지 않던 남자친구의 가사라이팅을 사랑이라고 믿었던 이야기 등 저자의 인생 백사리 기록들이 펼쳐진다.

저자는 순조로운 삶에서 이탈하고 나서야 나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한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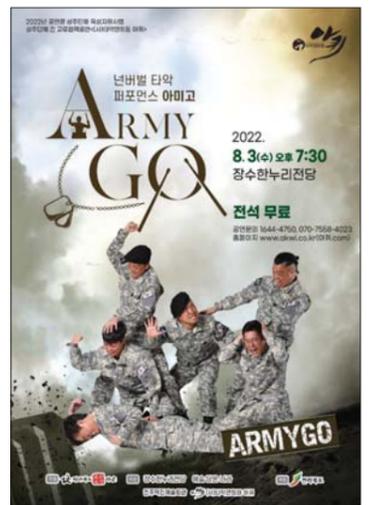
## 장수군, 너머별 타악 퍼포먼스 아미고 공연

장수군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2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연 중 'Army Go(아미고)' 공연을 3일 한누리전당에서 개최한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전주덕진예술회관 상주단체인 (사)타악연회원 아미고의 교류 공연으로 진행되며 오는 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펼쳐진다.

'Army Go(아미고)' 공연은 재기발랄 군악대의 최충우를 해외 원정기를 유쾌하고 코믹하게 그린 너머별 타악퍼포먼스 작품으로, 대사나 나레이션 없이 음악, 몸짓, 표정만으로 무대를 꾸며 몽환적인 분위기와 함께 타악기들의 흥겨운 무대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공연은 선착순 무료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또한 공연시작 10분 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